

끓는 폭염에 에어컨 매출도 '펄펄'

7월 둘째주 장마가 끝난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다.

17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7일간 판매된 에어컨 매출액은 직전 주 같은 기간(3~9일)보다 135% 증가했다.

특히 서울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최근 3일(14~16일) 동안에는 전 주 같은 기간(7~9일)보다 330% 늘었다. 같은 기간 작년보다는 각각 15%, 80% 증가한 수치다.

전자랜드의 에어컨 판매량도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자랜드의 에어컨 판매 실감률은 전주(3~9일)에 비해 169%나 성장했다. 전자랜드 측은 날이 많이 더워진 10일부터 판매량이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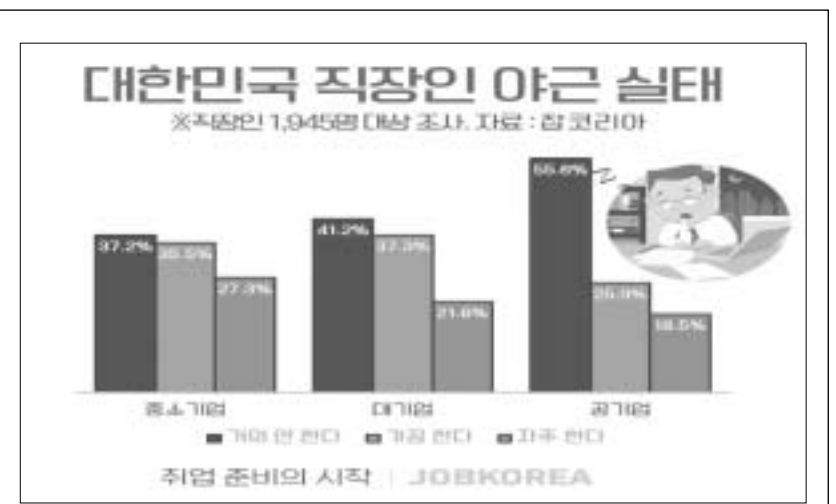
하이마트, 최근 1주일 에어컨 매출 두배 증가
전자랜드도 에어컨 매출 전주보다 169% 늘어



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은 롯데하이마트 가전팀 MD는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갑자기 찾아온 짙은 더위에 에어컨대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에어컨 설치 수요가 몰리게 되면 구매 후 배송·설치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460여개 하이마트 매장에서 에어컨 구매 고객에게 제품에 따라 캐시백을 준다. 오는 23일까지 LG전자의 행사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캐시백을 최대 35만캐시백을, 31일까지 삼성전자의 행사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캐시백을 최대 10만캐시백까지 준다.

뉴스시스



직장인 일주일 평균 2.8일 야근한다

야근시 평균 2~3시간 정도 더 일해...월요일 야근 가장 많아

야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평균 야근 횟수는 일주일에 2.8일 정도였으며, 야근을 할 때 평균 2.7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은 (복수응답) 월요일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화요일(39.1%), 목요일(36.6%) 등의 순이었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대한민국의 직장인 1945명을 대상으로 '야근 실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야근을 거의 안 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7.0%에 그쳤다. 반면 '가끔 야근을 한다'고 밝혔으며, 26.2%는 자주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이 가장 야근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을 자주 하는지 묻는 질문'에 27.3%의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자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외국계기업(24.5%)', '대기업(21.8%)' 순으로 야근을 자주하고 있는 반면은 공기업이 55.6%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미디어·광고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41.2%가 '야근을 자주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조·생산·화학업(35.1%) 문화·예술·디자인업(33.9%) 금융·은행업(30.1%) 등의 분야도 야근을 자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의료·제약업(54.9%), 서비스업(47.2%), 교육업(42.9%) 등은 타 업종에 비해 '야근을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차이가 있었다.

야근이 가장 잦은 직무는 디자인 인사와 연구개발직이었다. 디자인 직 직장인의 36.5%가 '야근을 자주한다'고 답해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연구개발직(36.3%), 생산, 기술직(33.4%), IT·정보통신직(29.3%) 직장인들도 야근을 자주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야근을 거의 안 한다는 답변

은 고객상담서비스직(53.7%), 전문직(44.0%), 재무·회계직(40.6%) 등의 직무가 많았다.

직급별로는 과·차장급(29.8%)과 주임·대리급(28.0%) 직장인들이 야근을 자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면 사원급 직장인들은 46.1%가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른 직급들에 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한편 직장인 83.5%가 '야근은 당연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야근을 할 때도 스스로의 결정(47.2%)보다는 '상사의 야근 지시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야근한다'는 답변이 52.8%로 더 높았다.

그럼에도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일이 많아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없다(46.7%)'는 답변이 1위를 기록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하다(42.4%)'는 이유도 높았다. 이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예측불허 업무' 때문에(22.6%),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 기업문화(20.9%)' 때문에 야근을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소수의견으로는 퇴근 시간에 압박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 때문(9.0%), 잦은 회의 및 외근으로 인해 업무가 밀려서(9.5%), 퇴근 시간 직전 회의를 잡는 상사 때문(4.0%), 분업 보다 보고서 작성 업무가 너무 많아서(4.1%)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야근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공기업 근무 직장인들의 경우 41.7%가, 대기업은 38.3%, 중소기업은 27.5%만이 '현재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야근 수당 없이 저녁 식사제공만을 하는 경우도 24.5%로 비교적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할 경우 회사에서 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답변 역시 19.4%로 저조했다.

재해 느는데...벼 재해보험 가입률 고작 37.3%

농식품부, 가입률 저조로 일주일 연장해가며 독려

재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여전히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올해 가입률도 고작 37.3%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3만 7587개 농가 27만 7988ha(헥타르·1ha=1만㎡)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 전보다 가입 농가 수는 17.2%(2만 169개 농가), 가입 면적은 5.8%(1만 5238ha)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영세 농업인의 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최소 가입 면적을 0.4ha에서 0.06ha로 완화하면서 농가당 평균 가입 면적은 2.02ha로 1년 전(2.34ha)보다 0.32ha 줄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대비 가입률은 37.3%였다. 1년 전의 37.1%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지역별로는 전남 8만 4410ha, 충남 5만 9931ha, 전북 5만 1513ha 순으로 가입 면적이 컸다.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가입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전국 9개 시·도 중 전국 평균 가입률을 넘는 곳도 전남(55.4%), 충남(46.4%), 전북(46.3%) 뿐이었다. 이마저도 가입률이 절반(50%)을 웃돈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집중호우·우박·가뭄 등 자연 재해와 야생동물(조수해),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등

6종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01년 도입됐지만 민영 보험사들이 손실을 우려해 발을 뺀 탓에 2003년부터 농협만이 정부 요청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이를 뺀 나머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데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無)사고 농가에 한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주고 있지만 시련중이다.

1년 보장의 단기성 보험인데다 일시불로 내야 해 농가 부담이 커서다.

게다가 지역별 활종이 적용되는 탓에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보험료를 상한선(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을 설정했지만 그 효과를 보는 시·군은 연천(12%), 안산(18%), 태안(22%), 나주(22%), 진도(38%) 등 5곳 뿐이다.

때문에 당초 가입 기간(3월20일~6월 말) 벼 재해보험에 든 농가는 1년 전보다도 9.4% 줄어든 10만 6000곳에 그쳤다.

비싼 농번기를 피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판매 개시일(4월24일)보다 한 달이나 앞당겼던 정부는 결국 가입 기간을 일주일(7일) 더 연장해 가입 독려에 나서야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가입 결과를 토대로 손해를 변동분 분석해 보험료를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 개선을 지속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11만 7400여개 농가 중 재해 피해를 입은 1만 7000개(3만 5000ha)가 총 95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6월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 3.3m²당 1065만원

전월비 0.88% ↓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지난달 3.3m²당 평균분양가는 1064만 9100원(㎡당 322만 7000원)으로 전월 대비 0.88% 하락했다. 전년 대비로는 7.12% 오른 수치다.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중 전

월대비 6개 지역은 상승, 6개 지역 보합, 5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3.3m²당 1539만 200원으로 전월대비 2.43% 하락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0.47% 상승했다. 기타지방은 1.08% 떨어졌다.

전국 규모별 민간아파트의 전월 대비 평균 분양가격은 평형이 클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용면적 102㎡초과(-3.77%), 전용면적 85

㎡초과 102㎡이하(-3.30%) 순으로 하락했다.

6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1만 3009세대로 전월 2만 2434세대 대비 42% 감소, 전년동월 2만 8446세대 대비 54% 감소했다.

6월 수도권의 신규분양세대수는 총 7554세대로 전년 동월 1만 8742세대 대비 60%가량 감소했으나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대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총 2254세대로 전년 동월 2054세대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기타지방은 총 3201세대로 전년 동월 7650세대 대비 58%가량 감소했다.

서울지역은 강동구와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에서 총 2306세대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강동구와 서대문구에서 분양이 이뤄졌으나 이달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용산구와 은평구의 영향으로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3.25% 하락한 3.3m²당 2209만 200원을 기록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불 소용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임산부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